

적대감 및 언어적 공격행동수준에 따른 네 집단 간의 비합리적 신념, 분노사고 및 삶의 만족도의 차이

Differences of Irrational Belief, Anger-Thought,
and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Four Groups
Classified based on the Levels of Hostility and Verbal Aggression

임지영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Jeeyoung Lim(littleicemachine@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격성 요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행동의 수준에 따른 네 집단 간에, 특히 내현적, 외현적 적대감 집단 간에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인 일차적 및 이차적 분노사고,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충남지역 남자 중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 요인 중 적대감이 삶의 만족도와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적대감을 통제한 후에는 언어적 공격행동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적대감은 삶의 만족도를 부적으로, 언어적 공격행동은 정적으로 예언하였다. 둘째,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의 요인들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내현적 적대감 집단은 외현적 적대감 집단에 비해 자기비하,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무력감 요인의 점수가 높은 반면, 외현적 적대감 집단은 내현적 적대감 집단보다 타인비난/보복 요인의 점수가 높았다. 삶의 만족도는 내현적 적대감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낮았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함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 중심어 : | 적대감 | 비합리적 신념 | 분노사고 | 삶의 만족도 | 남자 중학생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of agg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and the differences of irrational belief, primary-secondary anger thought, and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four groups classified based on the levels of hostility and verbal aggression. 268 middle school boys in Chungnam areas served as subjects. The results showed that hostility showed the most negative correlation with satisfaction with life.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hostility negatively predicted satisfaction with life, whereas verbal aggression positively predicted satisfaction with life. Factors of irrational belief, primary/secondary anger thought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atisfaction with life. Analyses of variances revealed that covert hostility group showed higher scores on self-depreciation, disregard and disappointment in intimate relationship situation, hopelessness, whereas overt hostility group showed higher scores on derogation of others/vengeance. In addition, covert hostility group showed lower scores on satisfaction with life than other groups.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 keyword : | Hostility | Irrational Belief | Anger-Thought | Satisfaction with Life | Middle School Boys |

I. 서론

청소년들 중 특히 사춘기의 급격한 변화 속에 있는 중학생의 경우 공격성과 폭력적 성향이 심한 반면, 자기통제와 판단이 미성숙하여 학교폭력 발생현황도 심각하고 이에 대한 대처행동으로서 자살을 포함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쉽다고 보고되고 있다[1].

공격성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의도적인 행동으로서[2], 많은 연구들에서 분노, 적대감, 공격행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왔으나 이후의 연구[3]는 분노, 적대감, 공격행동이 각각 정서, 인지, 행동적 차원에 해당함을 검증하였다. 공격성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부적응적 측면과 적응적 측면에 대한 논란이 존재되어 왔다[4-8]. 공격성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논란은 공격성의 하위요인들(적대감, 신체적 공격행동, 언어적 공격행동, 분노감)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9]. 또한 공격성의 하위요인 가운데 언어적 공격행동은 이러한 적응적, 부적응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10]. 공격성의 여러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부적 관계가 적대감에 기인함을 보여 주었다[9].

인지이론에 따르면 분노, 우울, 불안 등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부여나 해석이다[11]. 이와 관련한 인지요인으로서 특히 비합리적 신념과 자동적 사고가 중시되고 있는데, 역기능적 분노표출 및 공격행동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12].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여러 요인들 가운데 공격성의 부정적 영향이 적대감에 기인하며[9] 언어적 공격행동은 적응적, 부적응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는[10] 선행연구보고를 기초로 하여 공격성 요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행동의 수준에 따른 네 집단 간에, 특히 높은 적대감을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내현적 적대감 집단과 표현하는 외현적 적대감 집단 간에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인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 그리고 삶의 만족도

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전체 초중고 학생들 가운데 사춘기의 급격한 변화 속에 있는 중학생의 공격성 및 폭력성이 가장 높으며[2][13],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보고[14]에 기초하여 남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공격성의 하위요인들은 삶의 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는 삶의 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내현적, 외현적 적대감 집단을 포함하여 적대감 및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에 따른 네 집단 간에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적대감과 공격성

분노(Anger), 적대감(Hostility), 공격행동(Aggression)은 AHA 증후군이라 불리며, 공격성을 구성하는 세 요소로 언급된다[3][15-17]. 이 중 분노는 정서적 차원, 적대감은 인지적 차원, 공격행동은 행동적 차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ABC”모델로 불리기도 한다[3]. 분노에 대해 Buss와 Perry[15]는 공격을 위한 생리적 각성과 준비성이라 했고, Novaco[18]는 혐오적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대상을 향한 적대적, 부정적인 정서경험이라고 했다. 적대감은 타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다고 여기면서 타인과 세상을 부정적,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라 할 수 있다[15]. 공격행동은 타인이나 다른 대상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수행되는 행동을 지칭하며, 신체적 공격행동과 언어적 공격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15][16].

공격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격성의 부적응적인 기능을 일관되게 보고해왔다. 공격성은 통증이나 심혈관계 질환[4][19],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갈등을 포

함한 대인관계 문제[8] 등과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 우울, 불안 등의 정신장애들과 높은 공병을 보인다[20]. 그러나 한편으론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공격성의 적응적인 기능에 대한 논의도 있어왔다.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공격성이 타인과의 접촉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능력이라 하였고[21], 공격성이 창의성이나 자기주장성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있었다[6][7]. 언어적 공격행동에 초점을 맞춘 서수균[10]의 연구에서는 언어적 공격행동이 건설적 및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 모두와 정적상관을 가짐을 검증했는데, 이는 언어적 공격행동이 공격성의 적응적, 부적응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건설적 언어성 분노행동은 타인 이해와 자기역할 인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행동인 반면, 파괴적 언어성 분노행동은 타인을 책망하며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거나 분노사건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생각하는 부적응적인 행동이다[10].

공격성의 적응적, 부적응적인 측면에 대한 논란은 공격성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분노감이나 공격행동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거나 분노감, 적대감, 공격행동이 모두 포함된 공격성 수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9]. 공격성 질문지(AQ)를 이용하여 공격성의 부정적 기능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공격성 요인을 탐색한 서수균[9]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요인들(적대감, 언어적 공격행동, 신체적 공격행동, 분노감) 중에서 적대감이 주관적 안녕감의 변량을 가장 많이 부적으로 설명하였고, 회귀분석에서 적대감이 통제되었을 때 언어적 공격행동은 주관적 안녕감을 정적으로 예언하였으며, 신체적 공격행동과 분노감은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공격성의 부정적 영향이 적대감에 기인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공격성의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면 분노감이나 공격행동보다는 적대감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9].

2. 비합리적 신념

인지구조는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기억 속에 조직, 저장하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인지구조

의 하나인 비합리적 신념은 외부 자극을 선택적으로 지각, 해석, 저장한다. 비합리적 신념은 현실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외부세계나 상황을 해석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신념이다. 비합리적 신념의 내용은 자신이나 타인, 세상에 대한 완벽주의적이고 절대적이며 융통성 없는 사고가 주를 이룬다[12].

비합리적 신념의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를 비롯한 극단적이고 과도한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2][23]. Ellis와 Tafrate[24]는 비합리적 신념으로서 과묵화(~은 끔찍한 일이다),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을 참을 수 없다), 절대적 요구(~은 절대 안 된다), 책망(~은 반드시 벌 받아야 한다)을 제안하였고, Beck[11]은 절대적 요구와 책망을 강조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서수균[12]은 비합리적 신념을 성취에 대한 집착, 자기비하,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 호감이나 인정에 대한 집착으로 분류하였다.

3. 자동적 사고로서의 일차적 및 이차적 분노사고

분노사고는 분노상황에서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로서, 상황의 위협성이나 심각성,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처능력, 대처행동의 결과에 대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다[25]. Beck[11]을 비롯한 인지이론가들에 따르면 분노가 유발되는 과정은 두 단계의 평가 및 해석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 분노사고는 분노유발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서, 분노유발 상황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 일차적 분노사고의 내용은 타인의 행동이 규범을 어기거나 피해를 준다는 지각과 타인의 행동이 자존감이나 자기 가치감을 위협, 손상시켰다는 평가를 반영한다. 이처럼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일차적 분노사고는 인지적 오류나 왜곡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차적 분노사고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개인이 나타내는 대처행동이나 양상을 반영하는 인지적 산물이다. 이차적 분노사고의 내용은 타인비난이나 경멸, 보복, 회피, 자기비하와 같은 부적응적인 사고가 주를 이루며, 분노를 통제하거나 적응적으로 표현하거나 해소

하려는 적응적인 사고도 포함된다[12].

서수균[12]은 개인에 따라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를 보이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즉, 개인에 따라 일차적 분노사고가 두드러질 수도 있고, 이차적 분노사고가 두드러질 수도 있고, 두 가지 분노사고 모두 심각하게 역기능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보이는 일차적 및 이차적 분노사고의 양상에 대한 차별화된 인지적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치료적 개입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개념은 학자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는데, 삶의 질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26]. Medley[27]는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인 삶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반영하는 주관적인 감정이며 태도로서, 개인이 기대하는 바가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하였다. Burr[28]는 삶의 만족도에 대해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권석만[29]은 삶의 만족도를 개인이 설정한 삶의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의 상태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으로서,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이라 하였다.

Dinner 등[30]에 따르면 주관적인 안녕이나 행복은 감정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정적 요인은 긍정적, 부정적 감정에 대한 경험들로 구성되고, 삶의 만족도는 더 폭 넓은 인지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3세에서 24세 이르는 청소년 16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조명한 등[31]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와 같은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5. 적대감 및 공격성과 비합리적 신념, 분노사고,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공격성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공격성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서수균[9]의 연구는 공격성의 여러

요인들 가운데 적대감이 공격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도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공격성 요인들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공격성 요인들 중 적대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적대감이 통제되었을 때 언어적 공격행동은 주관적 안녕감을 정적으로 예언하였다. 이런 결과는 공격성의 부정적 영향에 적대감의 역할이 중요하며, 적대감이 없는 언어적 공격행동은 주관적 안녕감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서수균[9]은 적대감이 높으면서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적대감 수준은 높지만 이를 쉽게 표출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내면적 적대감 집단이라 할 수 있고, 적대감이 높으면서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한다는 면에서 외현적 적대감 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두 집단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포괄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비합리적 신념은 우울, 불안, 분노, 공격성, 병리적 도박, 인터넷 중독 등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왔다[32]. 비합리적 신념 중에서 특히 과묵화, 높은 인정욕구, 좌절에 대한 낮은 내성, 책망, 절대적 요구 등이 분노나 공격성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되었다[24][33][34]. 국내 연구[12]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의 유형으로서 성취에 대한 집착, 자기비하,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 호감이나 인정에 대한 집착이 제안되었고,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이 언어 및 행동 측면에서 역기능적, 공격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기재와 최해립[35]의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의 요인들 가운데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특히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는 비합리적 신념과 함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유발에 기여하며[36-38], 역기능적 분노나 공격행동의 발생에도 관련됨이 보고되었다[12]. 비합리적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황을 부정적, 위협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일차적 분노사

고를 많이 경험하게 되며, 대처 반응으로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보복하고자 하는 공격적인 사고를 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무력감에 빠지는 것과 같은 역기능적인 이차적 분노사고를 많이 하게 된다[1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볼 때, 공격성의 부정적 역할을 주도하는 적대감 수준이 높더라도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 내현적 적대감 집단과 외현적 적대감 간에 심리적 특징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울, 불안, 역기능적 분노 등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유발하는 인지적 요인인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와 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충남 천안 및 아산지역 3개 중학교에서 연구 참여에 협조를 얻어 남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상담전문교사가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학년 분포는 1학년 22.1%, 2학년 25.7%, 3학년 51.5%였고, 평균 연령은 14.30세($SD=.81$)였다.

2. 연구도구

2.1 공격성 질문지 (Aggression Questionnaire; AQ)

Buss와 Perry[15]가 개발한 원칙도를 서수균과 권석만[39]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총 27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 요인으로는 적대감, 언어적 공격행동, 신체적 공격행동, 분노감이 포함된다. 내적일관성(Cronbach α)은 적대감 .76, 언어적 공격행동 .73, 신체적 공격행동 .74, 분노감 .67이었다.

2.2 비합리적 신념 척도

비합리적 신념의 측정을 위해 수정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iGiuseppe 등[38]이 개발한 척도를 서수균[12]이 번안, 타당화한 것으로

서, 총 38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5개의 하위 비합리적 신념 요인과 1개의 합리적 신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5개의 하위 비합리적 신념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비합리적 신념 하위요인에는 성취에 대한 집착, 자기비하,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 호감이나 인정에 대한 집착이 포함된다. 내적일관성(Cronbach α)은 하위요인에 따라 .81~.87이었다.

2.3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자동적 사고 중 분노유발 상황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나 의미부여를 측정하기 위해 서수균[12]이 개발하였다. 총 20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과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을 포함한다. 내적일관성(Cronbach α)은 각각 .86과 .80이었다.

2.4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

이차적 분노사고척도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자동적 사고 중 일차적 분노사고에 이어서 일어나는 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서수균[12]이 개발한 척도로서, 주로 분노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대처행동이나 양상을 반영한다. 총 34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인비난/보복과 무력감은 역기능적인 내용이고, 분노통제/건설적 대처는 문제해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내용을 담고 있는 타인비난/보복과 무력감 요인을 사용하였다. 내적일관성(Cronbach α)은 각각 .96과 .78이었다.

2.5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측정하기 위해 Dinner 등[40]이 개발한 척도이다. 총 5문항에 대해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29]이 번안한 것을 사용

하였다. 내적일관성(Cronbach α)은 .87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였다. 첫째, 적대감 및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에 따른 네 집단의 구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대감 및 언어적 공격행동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초자료분석을 위해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공격성 요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적대감의 주도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적대감을 통제한 후 부분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격성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삶의 만족도와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내현적, 외현적 적대감 집단을 포함하여 적대감 및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에 따른 네 집단 간에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집단구분

연구대상자는 공격성 척도의 하위요인 중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행동 모두 상위 33% 이내의 점수를 받은 학생 33명은 외현적 적대감 집단(적대감 상/언어적 공격행동 상)에 할당되었고, 적대감은 상위 33% 이내지만 언어적 공격행동은 하위 33% 이내에 속하는 학생 36명은 내현적 적대감 집단(적대감 상/언어적 공격행동 하)에 할당되었다.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행동 모두 하위 33% 이내에 속하는 학생 44명은 적대감 하/언어적 공격행동 하 집단에 할당되었고, 적대감은 하위 33% 이내지만 언어적 공격행동은 상위 33% 이내에 속하는 학생 28명은 적대감 하/언어적 공격행동

상 집단에 할당되었다. 집단 구분이 적절한 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대감 점수의 경우 내현적($M=23.14$, $SD=4.09$), 외현적 적대감($M=24.79$, $SD=3.14$) 집단은 적대감이 낮은 두 집단, 즉 적대감 하/언어적 공격행동 하 집단($M=11.75$, $SD=2.52$)과 적대감 하/언어적 공격행동 상 집단($M=12.41$, $SD=2.38$)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3, 131)=164.90$ $p<.001$). 언어적 공격행동의 경우, 외현적 적대감 집단($M=18.03$, $SD=3.27$)과 적대감 하/언어적 공격행동 상 집단($M=17.55$, $SD=2.39$)이 적대감 하/언어적 공격행동 하 집단($M=8.86$, $SD=.88$)과 내현적 적대감 집단($M=8.94$, $SD=2.5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3, 131)=157.72$, $p<.001$). 따라서 집단 구분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기술통계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는 공격성 요인 중 적대감 18.08($SD=6.78$), 언어적 공격행동 12.54($SD=4.98$), 신체적 공격행동 17.06($SD=6.62$), 분노감 13.77($SD=4.35$)이었다. 비합리적 신념 요인 중 성취에 대한 집착 19.85($SD=7.03$), 자기비하 19.85($SD=6.11$),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15.46($SD=5.89$),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 20.27($SD=7.06$), 호감이나 인정에 대한 집착 12.59($SD=5.10$)였다. 일차적 분노사고 요인 중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30.06($SD=10.68$),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26.55($SD=9.00$)였고, 이차적 분노사고 요인 중 타인 비난/보복 43.83($SD=17.38$), 무력감 14.87($SD=6.30$)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19.00($SD=5.95$)였다. 회귀분석 실시를 위한 변인들의 정규분포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검토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1.8이하로서 정규분포가정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40].

3. 공격성 요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격성 요인 중 적대감($r=-.47$, $p<.01$)이 삶의 만족도와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보였고, 다음으로 분노감($r=-.23, p<.01$)이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언어적 공격행동($r=.07, p>.05$)과 신체적 공격행동($r=-.04, p>.05$)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적대감 통제 후 [표 2]와 같이 분노감($r=-.03, p>.05$)과 신체적 공격행동($r=.11, p>.05$)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언어적 공격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19, p<.05$).

공격성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격성의 네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격성 요인들 중 적대감($\beta=-.47, p<.001$)과 언어적 공격행동($\beta=.17, p<.05$)이 삶의 만족도 변량의 25%를 설명하였다.

4. 삶의 만족도와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 간의 상관관계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의 요인들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상관(-.19~ -.36)을 보였다.

5. 적대감 및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에 따른 네 집단 간의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 및 삶의 만족도의 차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대감 및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에 따른 네 집단 간에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의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에 차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적대감 ¹													
언어적 공격행동 ²	.20*												
신체적 공격행동 ³	.30**	.53**											
분노감 ⁴	.43**	.36**	.43**										
성취집착 ⁵	.25**	.18*	.12	-.01									
자기비하 ⁶	.34**	.05	.18*	.09	.71**								
낮은 인내력 ⁷	.30**	.26**	.16	.16*	.67**	.61**							
무시, 부당대우에 대한 과민성 ⁸	.30**	.27**	.24**	.19*	.76**	.65**	.68**						
호감, 인정 집착 ⁹	.26**	.24**	.20**	.05	.75**	.64**	.61**	.76**					
부당, 이기적행동에 대한 예민성 ¹⁰	.40**	.32**	.24**	.18*	.59**	.69**	.55**	.66**	.60**				
무시, 실망감 ¹¹	.41**	.19*	.14	.10	.67**	.75**	.62**	.68**	.64**	.80**			
타인비난/보복 ¹²	.52**	.56**	.48**	.34**	.50**	.46**	.44**	.56**	.48**	.58**	.48**		
무력감 ¹³	.58**	.09	.10	.03	.60**	.65**	.62**	.55**	.52**	.57**	.71**	.48**	
삶의 만족도 ¹⁴	-.47**	.07	-.04	-.23**	-.27**	-.34**	-.35**	-.27**	-.19*	-.29**	-.35**	-.23**	-.36**

* p<.05, ** p<.01

표 2. 적대감을 통제한 후의 공격성 요인과 삶의 만족도 간의 부분상관

	언어적 공격행동	신체적 공격행동	분노감
신체적 공격행동	.51**		
분노감	.31**	.35**	
삶의 만족도	.19*	.11	-.03

* p<.05, ** p<.01.

표 3.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격성의 단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Fchange	β
삶의 만족도	적대감	.22	37.97***	-.47***
	언어적 공격행동	.25	4.90***	.17*
	신체적 공격행동			.10
	분노감			-.03

* p<.05, ** p<.01, *** p<.001.

표 4. 적대감 및 언어적 공격성 수준에 따른 네 집단 간의 비합리적 신념, 분노사고, 삶의 만족도 평균비교

연구변인	적대감 하/ 언어적 공격행동 하 ^a (n=44)		적대감 하/ 언어적 공격행동 상 ^b (n=22)		내현적 적대감 ^c (n=36)		외현적 적대감 ^d (n=33)		F(3, 131)	사후비교 (Scheffe)
	M	SD	M	SD	M	SD	M	SD		
비합리적 신념										
성취집착	14.70	5.25	22.86	3.82	23.39	7.68	20.85	6.31	16.70***	a(b,c,d)
자기비하	11.30	4.99	17.00	3.38	20.81	5.15	16.27	5.50	24.89***	a(b,d<c)
낮은 인내력	10.70	4.07	19.00	2.51	18.19	6.29	16.36	5.26	21.97***	a(b,c,d)
무시, 부당대우에 대한 과민성	15.14	6.09	23.82	4.81	22.61	7.31	22.36	5.54	15.74***	a(b,c,d)
호감, 인정 집착	9.14	4.27	14.82	3.62	14.44	5.39	13.76	4.45	12.94***	a(b,c,d)
일차적 분노사고										
부당, 이기적행동에 대한 예민성	21.09	7.15	32.28	7.33	34.72	10.55	35.79	9.04	24.42***	a(b,c,d)
무시, 실망감	18.48	4.75	28.32	4.91	33.39	8.90	28.85	7.67	34.13***	a(b,d<c)
이차적 분노사고										
타인비난/보복	27.57	7.18	47.05	13.70	46.00	13.08	61.00	14.35	50.72***	a(b,c<d)
무력감	8.89	1.93	14.32	3.09	21.44	6.01	16.21	4.04	65.01***	a(b,d<c)
삶의 만족도	22.30	5.06	21.73	4.63	14.31	4.32	17.94	5.79	19.60***	a)d/c. a,b)c

** p<.01, *** p<.001.

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대감 하/언어적 공격행동 하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의 모든 요인들에서 유의하게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F=12.94\sim65.01, p<.001$) 또한 내현적 적대감 집단은 외현적 적대감 집단에 비해 특히 자기비하($F=24.89, p<.001$),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F=34.13, p<.001$), 무력감($F=65.01, p<.001$) 요인의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반면, 외현적 적대감 집단은 내현적 적대감 집단보다 타인비난/보복 요인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50.72, p<.001$). 삶의 만족도에서는 내현적 적대감 집단의 평균점수가 다른 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19.60, p<.001$).

V. 결론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여러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적대감 및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특히 내현적 및 외현적 적대감 집단 간에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를 포함한 인지요인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

시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 요인 중 적대감이 삶의 만족도와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보였고, 다음으로 분노감이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행동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적대감을 통제한 부분상관 분석결과, 분노감과 신체적 공격행동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언어적 공격행동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공격성 요인 들 중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적대감이었으며, 적대감이 통제되었을 때 언어적 공격행동은 삶의 만족도를 정적으로 예언하였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보고[9]와 마찬가지로 공격성의 여러 요인들 가운데 적대감이 공격성의 부정적 영향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적대감이 없는 언어적 공격행동은 자기주장적, 자기보호적인 행동을 반영하며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적 공격행동의 문항 내용 중에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얘기하거나 자신을 짜증나게 하는 상대방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는 것과 같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직접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적대감이 없는 언어적 공격행동은 타인과의 솔직한 소통을 돕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9], 이는 공격성의 긍정적인 기능[5-7]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의 요인들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신념이나 태도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보고[31]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적대감 및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에 따른 네 집단 간에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의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한 결과, 적대감 하/언어적 공격행동 하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의 모든 요인들에서 유의하게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내현적 적대감 집단은 외현적 적대감 집단에 비해 자기비하,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무력감 요인의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았다. 이런 결과는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이 낮으면서 적대감이 높은 내현적 적대감 집단이 갈등상황에 부딪치면 타인의 언행에 대해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기 쉽고 자신을 비하 하는 가운데 문제해결적 대처행동보다는 무기력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기비하나 무력감 사고가 우울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보고[12]를 고려할 때, 내현적 적대감 집단은 외현적 적대감 집단에 비해 우울에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이 모두 높은 외현적 적대감 집단의 경우, 내현적 적대감 집단과 비교하여 일부 요인들(자기비하,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무력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및 이차적 분노사고 요인들의 점수가 비슷한 수준이면서 타인비난/보복 요인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런 결과는 분노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과민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보복하려는 사고를 많이 한다는 선행보고[12]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런 인지적 특징으로 인해 외현적 적대감 집단은 만성적인 분노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내현적, 외현적 적대감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신념 및 역기능적인 분노사고를 수정하기 위해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은 낮으면서 적대감은 높은 내현적 적대감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면서 자기비하적이고 무기력한 사고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존감 향상과 함께 보다 유연하고 적응적인 사고로 수정해주는 개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이 모두 높은 외현적 적대감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은 갈등 상황에서 타인과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타인을 비난하고 보복하려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합리적 신념과 역기능적인 사고에 대한 개입과 함께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에 대한 훈련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적대감이 없는 언어적 공격행동은 자기주장적, 자기보호적인 기능을 함을 고려할 때[5][9] 내현적, 외현적 적대감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이 비공격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며 타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자기주장훈련[42]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부지역의 남자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표집을 하여 표집의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적대감 및 언어적 공격행동에 대한 자기보고형 질문지 점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으나 제 3자의 관찰 및 평정자료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집단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에 인지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만을 비교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나 정서인식 및 정서조절과 같은 정서관련 요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내현적, 외현적 적대감 집단을 중심으로 적대감 및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에 따른 인지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68782>
- [2] 홍명숙, 어주경,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애, 공감능력,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제14권, 제6호, pp.3911-3928, 2013.
- [3] R. Martin, D. Watson, and C. K. Wan, “A three-factor model of trait anger: Dimensions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Vol.68, pp.869-987, 2000.
- [4] 김교현, 전경구, “분노, 적개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권, 제1호, pp.79-95, 1997.
- [5] 권혁남, “분노에 대한 인간학적 고찰”, 인간연구, 제19권, pp.77-105, 2010.
- [6] J. Earley, 공격성, 상호작용중심의 집단상담, 2000.
- [7] H. Kohut, 자기의 회복(이재훈 옮김), 1977.
- [8] H. S. Pan, P. H. Neidig, and K. H. O’Leary, “Predicting mild and severe husband-to-wife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2, pp.975-981, 1994.
- [9] 서수균, “공격성 및 분노대처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31권, 제3호, pp.849-867, 2012.
- [10] 서수균, “한국판 언어성 분노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6권, 제1호, pp.239-250, 2007.
- [11] A. T. Beck,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Perennial, 2000.
- [12] 서수균,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한국학술정보(주), 2005.
- [13]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 2012.
- [14] 길주현, 오경자, “자기애의 세부특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7권, 제4호, pp.911-924, 2008.
- [15] A. Buss and M. Perry,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3, pp.452-459, 1992.
- [16] C. D. Spielberger, G. A. Jacobs, S. F. Russell, and R. J. Crane,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2, pp.161-190, Hillsdale, NJ: Erlbaum, 1983.
- [17] C. D. Spielberger, E. H. Johnson, S. F. Russell, R. J. Crane, G. A. Jacobs, and T. J. Worden,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 pp.5-30, Washington, DS: Hemisphere Publishing, 1985.
- [18] R. W. Novaco, “Anger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mong the mentally disordered,” In J. Monahan & H. J. Steadman (Eds.),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Developments in risk assessment*, pp.21-6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19] C. D. Spielberger and P. London, “Rage boomerangs,” *American Health*, Vol.1, pp.52-56, 1982.
- [20] 이홍, 김은정,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연구, 제19권, 제1호, pp.227-250, 2012.
- [21] F. Perls, R. F. Hefferline, and P. Goodman, *Gestalt therapy*, New York: Bentam, 1951.
- [22] 고경희, 특성분노, 분노표현 양식과 비합리적 신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0.
- [23] F. B. Douglas, “Anger and irrational beliefs in violent inmates,” *Personality & Individual*

- Difference, Vol.12, pp.21-215, 1991.
- [24] A. E. Ellis and R. C. Tafrate, *How to control your anger before it controls you*, New York: Citadel Press, 1997.
- [25] 권정혜, “인지행동치료의 실제”, 1993년도 한국 심리학회 동계연수회 자료집, 1993.
- [26] 조병삼, 최외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모자화 반응특성”, *미술치료연구*, 제20권, 제4호, pp.689-709, 2013.
- [27] M. L. Medlsey,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Vol.31, pp.457-454, 1976.
- [28] W. Burr,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family life cycle: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Vol.32, pp.29-37, 1979.
- [29] 권석만, *긍정심리학*, 서울:학지사, 2008.
- [30] E. Dinner, E. M. Suh, R. E. Lucas, and H. L. Smith,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125, pp.276-302, 1999.
- [31]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pp.61-94, 1994.
- [32] H. Li and S. Wang, “The role of cognitive distortion in online game addic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35, pp.1468-1475, 2013.
- [33] A. Deborah, *Cognitive distortions in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in The Adler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1999.
- [34] J. L. Deffenbacher and J. A. Hogg, “Irrational beliefs, depression, and anger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Vol.27, pp.349-353, 1986.
- [35] 이기재, 최해림, “분리-개별화, 자기개념 명확성 및 비합리적 신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제30권, 제2호, pp.81-99, 2009.
- [36] 조용래, *역기능적 신념과 부적응적인 자동적 사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8.
- [37] A. T. Beck, G. Emery, and R. L. Greenberg,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1985.
- [38] R. R. DiGiuseppe, R. C. Tarate, and C. I. Eckhardt, “Critical issues in the treatment of anger,”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Vol.1, pp.111-132, 1994.
- [39] 서수균, 권석만,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1권, pp.487-501.
- [40] P.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Y:Guilford Press, 2010.
- [41] E. Dinner, R. A. Emmons, R. J. Larsen, and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1985.
- [42] L. Canter and M. Canter, *Assertive Discipline for parents*, Harper & Row Publishers, Inc, 2001.

저 자 소 개

임 지 영(Jeeyoung Lim)

정희원



· 현재 :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심리 및 상담